Ⅰ. 경제금융 동향

1. 세계경제

□ 2016년 4/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은 주요국의 내수는 증가하였으나 순수출은 감소하며 전분기대비 하락함.

□ 2016년 4/4분기 미국(1.9%)과 유로지역(1.6%), 중국(1.7%)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대비 하락(미국 1.6%p, 유로지역 0.1%p, 중국 0.1%p)하였고, 일본(1.2%)의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하였음.

- ○ 미국, 유로지역, 중국은 순수출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보다 하락함.
- ○ 일본은 민간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 · 공공투자 증가 등으로 전분기와 동일한 성장률을 기록함.

□ 2016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6%p 하락한 0.5%를 기록함.

□ 2016년 4/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는 전 세계의 동반 상승세로 전분기보다 0.3 상승한 100.0을 기록함.

- ○ 실물경기 회복과 함께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냄.

□ 2016년 4/4분기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2.7%를 기록하였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동반 상승함.

□ 2016년 4/4분기 주요국 국채금리는 실물경제 회복과 더불어 미국의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아 전분기대비 상승함.

□ 세계경제는 실물경제지표가 호조되며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세계경제 성장세는 둔화될 우려가 있음.

■ 2016년 4/4분기 세계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감소로 인해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함.

○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순수출이 감소하여 전분기보다 1.6%p 하락한 1.9%(연율) 성장함(〈표 5〉 참조).

○ 중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순수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7%(연율)를 나타냄(〈표 10〉 참조).

○ 일본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택 · 공공투자 증가로 인해 전분기와 동일한 1.2%(연율)를 기록함(〈표 15〉 참조).

○ 유로지역 경제성장률은 수출과 수입 증가로 인해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1.6%(연율)를 기록함(〈표 19〉 참조).

〈표 1〉 세계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1]	n.a.	n.a.	n.a.	n.a.	3.2	n.a.	n.a.	n.a.	n.a.	3.1
선진국[1]	2.4		1.6		2.1	1.5		2.1		1.7
신흥국[1]	4.7		4.1		4.1	4.2		4.4		4.1
미국[2]	2.0	2.6	2.0	0.9	2.6	0.8	1.4	3.5	1.9	1.6
중국[3]	2.0	1.7	1.8	1.5	6.8	1.3	1.9	1.8	1.7	6.7
일본[4]	5.3	0.0	0.6	-1.0	1.2	1.9	2.2	1.2	1.2	1.0
유로[5]	3.3	1.6	1.1	2.0	2.0	2.1	1.3	1.7	1.6	1.7

주: 1) 국가별 분기 성장률은 계절조정계열된 전분기대비 연율임. 단, 중국은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연간 경제성장률은 원계열 전년대비 증가율임.
2) 세계: 미국, 한국, 중국 외 191개국 /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 외 39개국 / 신흥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외 152개국 / 유로: 리투아니아 포함 19개국.

자료: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2017. 4).
2)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2).
3) 중국 국가통계국(2017. 1).
4) 일본 내각부(2017. 3).
5) Eurostat(2017. 3).

■ 2016년 4/4분기 세계경제 경기선행지수[1]는 전 세계의 동반 상승세로 전분기보다 0.3 상승한 100.0을 기록함.

○ 미국과 유로지역은 실물경제지표 개선으로 전분기보다 각각 0.2 상승한 100.3과 99.9를 기록함.

○ 일본의 경기선행지수는 완만한 경기회복기조를 반영하며 전분기보다 0.2 상승한 99.8임.

○ 중국은 소비심리 개선과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며 전분기보다 0.3 상승한 99.1을 나타냄.

〈표 2〉 OECD 경기선행지수[1]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2]	100.2	100.4	100.3	100.0	100.2	99.7	99.6	99.7	100.0	99.7
선진국[3]	100.6	100.3	99.9	99.4	100.1	99.2	99.1	99.1	99.4	99.2
미국	100.3	100.4	100.4	100.4	100.3	100.3	100.1	100.1	100.3	100.2
유로	100.4	100.3	100.0	99.8	100.1	99.7	99.6	99.7	99.9	99.7
일본	100.1	100.0	99.7	99.5	99.8	99.4	99.5	99.6	99.8	99.6
중국	99.8	99.7	99.4	99.0	99.5	98.7	98.6	98.8	99.1	98.8

주: 1) 월간자료를 분기는 3개월, 연간은 12개월 단순 평균하여 산출함.
2) OECD 국가와 6개 주요 신흥국.
3) OECD 국가.
자료: OECD.

■ 2016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6%p 하락한 0.5%를 기록함.

○ 선진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1.0%를 기록함.

○ 신흥국 무역규모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7%p 하락한 -0.1%를 나타냄.

1) 2007년 1월=100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함.

〈표 3〉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1),2)]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3.2	2.0	1.7	1.3	2.0	0.8	1.5	1.1	0.5	1.3
선진국	3.7	3.2	2.4	1.5	2.7	1.3	1.3	1.4	1.0	1.4
신흥국	2.4	0.3	0.7	0.9	1.1	0.1	1.8	0.6	-0.1	1.1

주: 1) 선진국은 미국, 일본, 유로지역 19개국과 기타 국가로 구성되고, 신흥국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국가로 구성됨.
2) 전년동기대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16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2.7%를 기록하였고,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동반 상승함.

○ 선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1.2%를, 신흥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3%p 상승한 4.0%를 나타냄.

○ 두바이 현물지수와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현물지수는 전분기보다 각각 13.2%, 11.6% 상승한 48.5, 50.0이고, CRB 상품지수[2)]는 2.3% 상승한 188.3을 기록함.

〈표 4〉 세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구분	소비자물가 상승률[1)](%)					구분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2)]				
	2016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2.7	2.4	2.2	2.7	n.a.	두바이 현물지수	31.1	45.5	42.8	48.5	42.0
선진국	0.6	0.5	0.7	1.2	0.8	WTI 현물지수	35.2	47.8	44.8	50.0	44.5
신흥국	4.5	4.0	3.7	4.0	4.4	CRB 상품지수[2)]	165.9	183.4	184.1	188.3	180.6

주: 1)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1967=100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7. 4); 한국은행; Bloomberg.

2) 국제적인 상품가격 조사회사인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만든 지수로, 1956년에 첫 발표된 가장 오래된 상품지수임. CRB 지수는 2005년에 결정된 비중에 따라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를 비롯해 천연가스, 금, 구리, 니켈, 설탕, 커피, 옥수수, 밀, 오렌지주스, 돼지고기 등 19개의 원자재 선물가격 평균을 상품지수로 나타낸 것으로 농산물 비중이 가장 큼.

가. 미국경제

□ 2016년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감소로 인해 전분기보다 1.6%p 하락한 1.9%를 기록함.

○ 민간소비(3.0%)와 민간투자(9.2%)는 전분기대비 증가하면서 성장 모멘텀이 지속됨.

○ 수출(-4.0%)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분기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수입(8.5%)은 크게 증가함.

□ 2016년 4/4분기 주요 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 증가율(1.7%)과 소비자신뢰지수(107.8)는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0.2%), 설비가동률(75.8)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53.3), 경기선행지수(124.2)는 전분기대비 상승함.

○ 실업률(4.7%)은 전분기보다 하락한 반면 취업자 수(44만 3,000명)는 증가하여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1.8%)과 생산자물가 상승률(1.0%)은 모두 전분기대비 상승함.

□ 2016년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1.23%, 10년물 2.13%)는 FOMC의 기준금리 인상과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전분기대비 급등함.

〈경제성장〉

■ 2016년 4/4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수출 감소로 인해 전분기보다 1.6%p 하락한 1.9%를 기록함.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3.0%를 기록하며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

○ 주택투자 증가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민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6.2%p 상승한 9.2%를 기록함.

○ 수출 증가율은 기저효과 등으로 전분기보다 14.0%p 하락한 -4.0%로 크게 하락한 반면,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6.3%p 상승한 8.5%를 기록함.

○ 정부지출은 전분기보다 0.4%p 하락한 0.4%를 기록함.

〈표 5〉 미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2.3	2.4	2.0	2.6	2.0	0.9	2.6	0.8	1.4	3.5	1.9	1.6
민간소비	4.6	2.9	2.4	2.9	2.7	2.3	3.2	1.6	4.3	3.0	3.0	2.7
재화	5.1	3.9	2.7	4.3	4.2	2.1	4.0	1.2	7.1	3.5	5.7	3.6
서비스	4.3	2.3	2.3	2.2	2.0	2.3	2.8	1.9	3.0	2.7	1.8	2.3
민간투자	2.6	4.5	9.9	1.0	2.0	-2.3	5.0	-3.3	-7.9	3.0	9.2	-1.6
설비	-1.1	6.0	1.3	1.6	3.9	-3.3	2.1	-3.4	1.0	1.4	1.3	-0.5
주택	11.4	3.5	13.3	14.9	12.6	11.5	11.7	7.8	-7.7	-4.1	9.6	4.9
수출	4.5	4.3	-5.8	2.9	-2.8	-2.7	0.1	-0.7	1.8	10.0	-4.0	0.4
수입	11.2	4.4	5.6	2.9	1.1	0.7	4.6	-0.6	0.2	2.2	8.5	1.1
정부지출	-0.4	-0.9	2.6	3.2	1.9	1.0	1.8	1.6	-1.7	0.8	0.4	0.8

주: 전분기대비 연율화함.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2017. 2),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소비부문〉

■ 2016년 4/4분기 전분기대비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모두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8%p 상승한 1.7%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대비 7.1 상승한 107.8을 기록함.

■ 2016년 4/4분기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과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대비 모두 상승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0.3%p 상승한 9.0%를 나타냄.

○ 주택가격지수는 전분기보다 0.7 상승한 191.9를 기록함.

〈표 6〉 미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매판매 증가율[1](%)	-0.7	1.5	1.0	0.2	2.3	-0.2	1.6	0.9	1.7	3.0	0.6	0.1
소비자신뢰지수[2]	101.4	96.2	98.3	96.2	98.0	96.0	94.8	100.7	107.8	99.8	111.6	116.1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3](%)	-6.7	17.2	0.0	-1.8	10.7	1.5	0.7	-1.3	9.0	6.1	-1.9	3.0
주택가격지수[4]	173.7	178.8	182.2	182.5	179.3	183.2	188.3	191.2	191.9	188.6	192.8	n.a.

주: 1) 계절조정,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Conference Board 1985=100
3) 계절조정,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 계절조정, 2000.1=100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S&P Dow Jones Indices.

〈생산부문〉

■ 2016년 4/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 설비가동률은 전분기와 동일하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3]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0.2%를 나타냄.

○ 설비가동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75.8을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대비 2.2 상승한 53.3임.

○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대비 0.7 상승한 124.2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지속함.

〈표 7〉 미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산업생산 증가율[1](%)	-0.8	-1.0	0.1	-0.9	-0.7	-0.3	-0.2	0.2	0.2	-1.2	-0.1	0.1
설비가동률[2]	77.8	76.6	76.7	76.0	77.7	75.8	75.7	75.8	75.8	76.3	75.9	75.9
ISM제조업PMI	53.4	52.4	50.9	48.7	51.4	50.0	51.5	51.1	53.3	51.5	56.0	57.7
경기선행지수[3]	120.3	121.8	122.1	122.8	121.8	122.4	122.9	123.5	124.2	123.3	125.5	126.2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07=100
3) 2004=100
자료: Bloomberg.

3)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를 구성하는 요인은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임.

〈고용 및 물가[4]〉

■ 2016년 4/4분기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하였으나, 취업자 수는 감소함.

○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2%p 하락한 4.7%를 기록하고, 포괄적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9.3%를 나타냄.

○ 비농업취업자는 44만 3,000명 증가하여 전분기 증가규모보다 27만 3,000명 감소하고,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5만 3,000명으로 전분기보다 5,000명 감소함.

■ 2016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모두 전분기대비 상승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7%p 상승한 1.8%, 근원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한 2.1%를 기록함.

○ 전년동기대비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2.3%p 상승한 1.0%,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0.4%p 상승한 1.7%임.

〈표 8〉 미국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단위: %, 만 명)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업률[1]	5.5	5.4	5.1	5.0	5.3	4.9	4.9	4.9	4.7	4.9	4.8	4.7
포괄적 실업률(u-6)[2]	11.1	10.7	10.2	9.9	10.4	9.8	9.7	9.7	9.3	9.6	9.4	9.2
비농업취업자 증감[3]	55.8	81.2	51.1	83.2	271.3	58.8	49.3	71.6	44.3	224.0	23.8	23.5
실업수당 청구자 수[4]	29.1	27.9	27.3	26.9	27.8	27.2	26.8	25.8	25.3	26.3	24.7	24.0
소비자물가 상승률[5]	-0.1	0.0	0.1	0.5	0.1	1.1	1.0	1.1	1.8	1.3	2.5	2.7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5]	1.7	1.8	1.8	2.0	1.8	2.2	2.2	2.2	2.1	2.2	2.3	2.2
생산자물가 상승률[6]	-3.2	-3.3	-3.3	-3.3	-3.3	-1.8	-1.9	-1.3	1.0	-1.0	3.0	3.7
근원 생산자물가 상승률[6]	1.9	2.1	2.2	1.8	2.0	1.6	1.6	1.3	1.7	1.5	1.7	1.6

주: 1)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구직포기자,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 포함, 계절조정,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전분기대비 증감,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4) 해당 기간의 청구자 수 평균.
5) 1982~84=100, 전년동기(월)대비.
6) 1982=100,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oomberg.

4) 물가 지표는 다른 지표와는 달리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전년동기와 비교함.

〈국채금리〉

■ 2016년 4/4분기 국채금리는 FOMC의 기준금리 인상과 향후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전분기대비 급등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39bp 상승한 1.23%,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57bp 상승한 2.13%임.

〈표 9〉 미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채 3년물	0.96	0.96	1.01	1.13	1.01	1.03	0.91	0.84	1.23	1.00	1.47	1.46
국채 10년물	1.97	2.15	2.21	2.18	2.13	1.92	1.74	1.56	2.13	1.84	2.43	2.41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나. 중국경제

□ 2016년 4/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순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7%를 나타냄.

□ 2016년 4/4분기 중국의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 소매판매 증가율(10.6%)과 소비자신뢰지수(108.1)는 전분기보다 상승하며 소비심리 개선이 지속됨.
- ○ 산업생산 증가율(6.1%)은 전분기와 동일하였고,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51.4)는 전분기보다 상승함.
-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2.2%)과 생산자물가 상승률(3.3%)은 모두 상승하여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됨.

□ 2016년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3.25%, 10년물 3.48%)는 전분기대비 상승하였고,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6.833)은 미 달러화 강세로 평가절하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보다 상승함.

〈경제성장〉

■ 2016년 4/4분기 중국의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순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1.7%를 나타냄.

- ○ 고정자산투자는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8.2%를 기록하며 둔화세가 지속됨.
-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7%p 상승한 -5.2%를 나타내며 감소세가 둔화됨.
-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6.4%p 상승한 2.3%를 기록함.

〈표 10〉 중국의 지출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질 GDP[1]	2.0 (7.0)	1.7 (7.0)	1.8 (6.9)	1.5 (6.8)	6.8	1.3 (6.7)	1.9 (6.7)	1.8 (6.7)	1.7 (6.8)	6.7	n.a.	n.a.
고정자산투자[2]	13.7	11.6	10.8	10.1	11.4	10.5	9.7	8.1	8.2	9.0	8.9[3]	
수출[4]	9.9	-2.8	-6.3	-5.2	-1.1	-11.9	-6.3	-6.9	-5.2	-7.6	7.9	-1.3
수입[4]	-17.6	-13.3	-14.1	-11.6	-14.2	-13.9	-6.9	-4.1	2.3	-5.6	16.7	38.1

주: 1) 전분기대비,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2) 도시지역 기준.
3) 1~2월 누적치.
4)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소비부문〉

■ 2016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과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상승하며 소비심리 개선이 지속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10.6%를 나타내며 연간 10% 수준을 유지함.

- 2016년 자동차 구매 급증은 전체 연간 소매판매 증가율에 0.5%p 기여한 것으로 추산됨.[5]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보다 2.4 상승한 108.1을 기록함.

〈표 11〉 중국의 주요 소비부문 지표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매판매 증가율[1](%)	10.2	10.2	10.7	11.1	10.6	10.5	10.2	10.5	10.6	10.4	n.a.	n.a.
소비자신뢰지수	107.5	107.7	104.7	103.9	105.9	102.8	101.2	105.7	108.1	104.4	109.2	n.a.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ECI(Entrepreneurs Confidence Index): 0부터 200까지 값을 갖는데 100~200일 경우 중국 기업가들(건설, 도매 등 8개 섹터 21,000개 기업)이 기업경기가 긍정적인 것으로, 0~100일 경우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함.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5) 장링(2017. 1. 31), 『중국 경제 동향 및 '17년 전망』, KDB 산업은행.

〈생산부문〉

■ 2016년 4/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하였고, 구매자관리지수는 전분기대비 상승함.

○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6.1%를 기록함.

○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전분기보다 1.2 상승한 51.4임.

〈표 12〉 중국의 주요 생산부문 지표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산업생산 증가율[1](%)	5.6	6.3	5.9	5.9	6.0	6.8	6.1	6.1	6.1	6.2	n.a.	n.a.
제조업PMI[2]	49.9	50.2	49.8	49.7	49.9	49.5	50.1	50.2	51.4	50.3	51.3	51.6

주: 1)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2)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 50을 기준으로 하며 50 초과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확대를 의미하며 50 미만은 전년대비 축소를 의미하고 50은 변화 없음을 나타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고용[6] 및 물가〉

■ 2016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모두 상승함.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2.2%를 기록함.

○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4.1%p 상승한 3.3%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함.

〈표 13〉 중국의 주요 물가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1.2	1.4	1.7	1.5	1.4	2.1	2.1	1.7	2.2	2.0	2.5	0.8
생산자물가 상승률	-4.6	-4.7	-5.7	-5.9	-5.2	-4.8	-2.9	-0.8	3.3	-1.3	6.9	7.8

주: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증가율,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Bloomberg.

6) 중국 고용의 경우 통계청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실업자가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므로 통계 자료가 정확하지 않음. 또한 중국 고용지표 발표가 불규칙하여 본고에서는 생략함.

〈국채금리 및 환율〉

■ 2016년 4/4분기 국채금리는 전분기대비 상승하였고,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로 평가절하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보다 상승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39bp 상승한 3.25%, 국채 10년물 금리는 24bp 상승한 3.48%임.

○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은 미국 대선과 함께 금리인상 및 달러강세의 영향으로 위안화 평가절하가 지속되면서 전분기보다 2.5% 상승한 6.833위안임.

〈표 14〉 중국의 국채금리와 환율 지표

(단위: %, 위안)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채 3년물	3.48	3.20	3.05	3.39	3.28	3.90	3.34	2.86	3.25	3.34	3.98	4.23
국채 10년물	3.52	3.48	3.51	3.52	3.50	3.83	3.68	3.24	3.48	3.56	4.08	4.25
위안/달러	6.236	6.204	6.302	6.392	6.284	6.539	6.533	6.667	6.833	6.644	6.898	6.872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다. 일본경제

□ 2016년 4/4분기 일본 경제성장률은 순수출 감소와 민간소비, 설비투자 증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공공투자와 정부지출 증가로 전분기와 동일한 0.3%를 기록함.

□ 2016년 4/4분기 일본의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 광공업생산 증가율(2.1%)은 전분기보다 상승하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 ○ 소매판매 증가율(2.0%)은 상승하였고. 소비자신뢰지수(42.1)는 전분기와 동일함.
- ○ 전년동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7.9%)은 전분기에 비해 상승한 반면 민간기계 수주액 증가율(0.3%)은 하락함.
- ○ 실업률(3.1%)과 유효구인배율(1.40배)은 모두 전분기대비 소폭 상승함.
- ○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0.3%)은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6년 4/4분기 국채금리(3년물 -0.19%, 10년물 0.00%)는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 현 상유지 결정과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전분기대비 상승함.

〈경제성장〉

■ 2016년 4/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순수출 감소와 민간소비, 설비투자 증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공공투자와 정부지출 증가로 전분기와 동일한 0.3%를 기록함.
-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하락한 0.0%를 기록함.
- ○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3%p 하락한 0.1%를 나타내며 둔화됨.
- ○ 주택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2.1%p 상승한 2.0%를 기록함.
- ○ 공공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1%p 상승한 0.3%를 나타냄.
-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6%p 하락한 -2.5%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지속함.
- ○ 수입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2.6%를 기록함.
-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6%p 상승한 1.3%를 나타냄.

〈표 15〉 일본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0.7 (2.7)	0.3	1.3 (5.3)	0.0 (0.0)	0.2 (0.6)	-0.2 (-1.0)	1.2	0.5 (1.9)	0.5 (2.2)	0.3 (1.2)	0.3 (1.2)	1.0
민간소비	0.6	-0.9	0.5	-0.4	0.5	-0.6	-0.4	0.4	0.2	0.3	0.0	0.4
설비투자	0.0	-4.3	3.2	1.1	1.5	-1.0	-1.6	1.5	3.3	2.4	0.1	5.6
주택투자	0.6	5.2	1.1	-1.1	0.7	0.1	1.1	-0.2	1.4	-0.1	2.0	1.4
공공투자	0.2	0.5	0.9	0.1	0.5	0.7	1.6	1.3	-1.1	0.2	0.3	1.5
수출	1.9	0.7	-2.2	0.6	-1.2	-1.3	-2.2	-1.2	1.0	-0.9	-2.5	-3.0
수입	3.2	9.3	1.6	-3.6	2.1	-0.8	3.0	0.9	-1.2	2.1	2.6	1.2
정부지출	1.2	8.3	0.4	-2.6	2.3	-0.8	0.1	-1.1	-1.0	-0.3	1.3	-1.7

주: 전분기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일본 내각부(2017. 3).

〈소비 및 생산부문〉

■ 2016년 4/4분기 광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7%p 상승한 2.1%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임.

■ 2016년 4/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상승하였고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0%p 상승한 2.0%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전분기와 동일한 42.1로 집계됨.

■ 2016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상승한 반면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감소함.

○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0.8%p 상승한 7.9%를 나타냄.

○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5.2%p 감소한 0.3%를 기록함.

〈표 16〉 일본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광공업생산 증가율[1](%)	1.1	-1.3	-1.0	0.0	-1.2	-1.0	0.2	1.4	2.1	-0.5	-0.4	n.a.
소매판매 증가율[2](%)	-1.6	0.1	1.1	-0.2	-0.4	-2.3	0.1	1.0	2.0	-0.6	0.5	n.a.
소비자신뢰지수[3]	40.6	41.5	41.0	42.2	41.3	41.4	41.2	42.1	42.1	41.7	43.2	43.1
신규주택착공호수 증가율[4](%)	-5.4	7.6	6.2	-0.7	1.9	5.5	4.9	7.1	7.9	6.4	12.8	n.a.
민간기계수주액 증가율[5](%)	3.5	4.7	-8.0	2.9	4.1	4.2	-6.4	5.5	0.3	1.7	-3.2	n.a.

주: 1) 계절조정, 2005=100,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3) 기준치=50, 기간 중 평균.
4) 전년동기(월)대비.
5) 변동성이 큰 선박 · 전력 제외, 전분기대비,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고용 및 물가〉

■ 2016년 4/4분기 실업률과 유효구인배율[7]은 전분기에 비해 모두 상승함.

○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3.1%를 기록함.

○ 또한, 유효구인배율은 1.40배로 전분기대비 높아짐.

■ 2016년 4/4분기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상승한 0.3%를 나타냄.

○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0.1%를 나타냄.

〈표 17〉 일본의 주요 고용 및 물가 지표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업률(%)	3.5	3.4	3.4	3.3	3.4	3.2	3.2	3.0	3.1	3.1	3.0	2.8
유효구인배율[1](배)	1.15	1.18	1.22	1.25	1.20	1.29	1.36	1.37	1.40	1.40	1.43	1.43
소비자물가 상승률[2](%)	2.3	0.5	0.1	0.3	0.8	0.0	-0.4	-0.5	0.3	-0.1	0.4	0.3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2](%)	2.1	0.5	0.8	0.8	1.0	0.6	0.5	0.2	0.1	0.3	0.1	-0.1

주: 1) 구인 수 / 구직자 수, 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2010=100, 전년동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년동월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 일본 후생노동성; 총무성; Bloomberg.

7) 유효구인배율 = 구인자 수 / 구직자 수

〈국채금리〉

■ 2016년 4/4분기 국채금리는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 현상유지 결정과 미국 금리인상 등의 영향을 받아 전분기대비 상승함.

○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5bp 상승한 -0.19%,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12bp 상승한 0.00%임.

○ 일본은행(BOJ)은 2017년 3월에도 금융정책 현상유지와 장단기금리 운영을 종전과 동일하게 할 것으로 결정함.

- 단기금리는 -0.1%를 적용하고 장기금리는 국채 10년물 금리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국채매입을 실시하며 매입규모는 현행수준(연간 80조 엔)을 유지함.

〈표 18〉 일본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국채 3년물	0.02	0.01	0.02	0.01	0.02	-0.13	-0.24	-0.24	-0.19	-0.20	-0.17	-0.16
국채 10년물	0.34	0.40	0.39	0.31	0.36	0.07	-0.11	-0.12	0.00	-0.04	0.06	0.09

주: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라. 유로지역[8]경제

□ 2016년 4/4분기 유로지역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0.4%를 기록함.

□ 2016년 4/4분기 유로지역 주요부문별 경제동향은 다음과 같음.
- ○ 경기체감지수(106.9)와 산업생산 증가율(0.9%)은 전분기대비 상승함.
- ○ 주요국의 실업률(6.2%)은 소폭 감소하였는데 북유럽 국가(6.7%)는 전분기와 동일하고, 나머지 국가들(동유럽 6.4%, 남유럽 16.0%)은 전분기보다 감소함.
- ○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0%)은 모든 유럽 국가(북유럽 1.6%, 동유럽 0.4%, 남유럽 0.5%)에서 상승하며 전분기보다 상승함.

□ 2016년 4/4분기 국채금리(독일 3년물 -0.68%, 독일 10년물 0.19%, 영국 3년물 0.23%, 영국 10년물 1.25%)는 실물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상승함.

〈경제성장〉

■ 2016년 4/4분기 유로지역 전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독일, 프랑스, 영국의 경제성장률 상승과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전분기와 동일한 0.4%를 기록함(〈표 19〉, 〈표 22〉 참조).
- ○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은 전분기보다 각각 0.3%p, 0.2%p, 0.1%p 상승한 0.4%, 0.4%, 0.7%를 나타낸 반면, 이탈리아는 전분기대비 0.1%p 하락한 0.2%, 스페인은 전분기와 동일한 0.7%를 기록함.
- ○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1%p 상승한 0.4%를 기록함.
- ○ 고정자본투자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1.3%p 상승한 0.6%를 나타냄.
- ○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1.2%p 상승한 1.5%를 기록하며 큰 폭의 상승을 보임.
- ○ 수입 증가율의 경우 전분기대비 2.1%p 상승한 2.0%를 나타냄.
- ○ 정부지출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0.3%p 증가한 0.4%를 기록함.

8) 유로지역(Euro Area) 19개국.

〈표 19〉 유로지역의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1)]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0.4	1.2	0.8	0.4	0.3	0.5	2.0	0.5	0.3	0.4	0.4	1.7
	(1.7)		(3.3)	(1.6)	(1.1)	(2.0)		(2.1)	(1.3)	(1.7)	(1.6)	
민간소비	0.5	0.8	0.5	0.5	0.4	0.4	1.3	0.7	0.3	0.3	0.4	2.0
고정자본투자	0.6	1.5	1.6	0.0	0.8	1.4	3.2	0.3	1.2	-0.7	0.6	2.6
수출	1.5	4.4	2.7	1.2	0.2	0.8	6.5	0.2	1.3	0.3	1.5	2.9
수입	1.4	4.9	2.5	0.8	1.2	1.5	6.5	-0.1	1.4	-0.1	2.0	3.5
정부지출	0.2	0.6	0.3	0.3	0.5	0.5	1.3	0.7	0.3	0.1	0.4	1.8

주: 1) 전분기대비이며, 괄호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연율.
자료: Eurostat(2017. 3).

〈소비 및 생산부문〉

■ 2016년 4/4분기 유로지역 ESI(경기체감지수)는 106.9로 전분기보다 2.7 상승함.

○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4%p 상승한 0.7%를 나타냄.

○ 소비자신뢰지수는 4/4분기 -6.4로 부정적인 경기전망이 지속되고 있음.

■ 2016년 4/4분기 유로지역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0.5%p 상승한 0.9%를 나타냄.

〈표 20〉 유로지역의 주요 소비 및 생산 지표[1)]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유로지역 ESI[2)]	102.5	103.6	104.5	106.2	104.2	103.9	104.2	104.2	106.9	104.8	107.9	108.0
소매판매 증가율[3)](%)	1.1	0.6	0.7	0.0	2.7	0.8	0.3	0.3	0.7	1.9	-0.1	n.a.
소비자신뢰지수[4)]	-6.2	-5.2	-7.0	-6.4	-6.2	-8.3	-7.8	-8.2	-6.4	-7.7	-4.8	-6.2
산업생산 증가율[5)] (%)	1.4	0.2	0.3	0.0	2.1	0.9	-0.1	0.4	0.9	1.4	0.9	n.a.

주: 1) 전분기대비, 분기별 통계는 3개월 이동평균, 월별통계는 전월대비.
2)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 + 서비스업(30%) + 소비자신뢰(20%) + 건설업(5%) + 소매거래(5%)
3) 계절조정 2005=100
4)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5) 비계절조정 2005=100
자료: Eurostat; Bloomberg.

〈고용 및 물가[9]〉

■ 2016년 4/4분기 북유럽 국가의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반면, 동유럽과 남유럽 국가의 실업률 하락으로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하락함.

○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의 실업률은 전분기보다 0.1%p 하락한 6.2%를 기록함.

○ 북유럽 실업률은 전분기와 동일한 6.7%를 유지하고 동유럽과 남유럽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각각 0.4%p, 0.3%p 하락한 6.4%, 16.0%를 기록함.

■ 2016년 4/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모든 유럽 국가에서 상승함.

○ 유럽 주요국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0.5%p 상승한 1.0%임.

○ 권역별로 보면,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의 전년동기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분기대비 각각 0.1%p, 0.6%p, 0.4%p 상승한 1.6%, 0.4%, 0.5%를 기록함.

〈표 21〉 유럽 권역별 실업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단위: %)

분기	실업률				소비자물가 상승률[5]			
	주요국[1]	북유럽[2]	동유럽[3]	남유럽[4]	주요국	북유럽	동유럽	남유럽
2016년 2/4	6.3	6.6	7.1	16.6	0.1	1.2	-0.7	-0.2
2016년 3/4	6.3	6.7	6.8	16.3	0.5	1.5	-0.2	0.1
2016년 4/4	6.2	6.7	6.4	16.0	1.0	1.6	0.4	0.5

주: 1) 주요국: 독일, 프랑스, 영국.
2)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3) 동유럽: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4) 남유럽: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5) 전년동기대비.
자료: Eurostat(2017. 3).

9) 유로지역 19개국 분류가 아닌 유럽 권역별 분류 데이터를 사용함.

〈표 22〉 주요 유로지역 국가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독일	실질 GDP	0.8	1.6	0.2	0.5	0.2	0.4	1.7	0.7	0.5	0.1	0.4	1.9
	민간소비	0.6	0.9	0.3	0.7	1.1	1.3	2.0	1.3	0.9	0.2	0.8	2.0
	고정자본투자	1.1	3.4	0.5	0.1	0.1	1.6	1.7	1.8	-1.5	-0.2	0.8	2.3
	수출	2.0	4.1	1.0	1.6	0.0	-0.7	5.2	1.4	1.2	-0.3	1.8	2.6
	수입	2.7	4.0	1.4	0.4	1.1	0.6	5.5	1.4	0.1	0.4	3.1	3.7
프랑스	실질 GDP	0.1	0.6	0.6	0.0	0.3	0.2	1.3	0.6	-0.1	0.2	0.4	1.2
	민간소비	0.4	0.7	0.3	0.3	0.3	0.4	1.5	0.4	0.4	0.3	0.3	1.9
	고정자본투자	-0.2	-0.3	0.4	-0.2	0.8	1.3	1.0	1.2	0.0	0.2	0.5	2.8
	수출	2.7	3.3	1.9	1.7	-0.4	0.5	6.1	-0.2	0.0	0.8	1.3	1.2
	수입	1.7	3.3	2.1	0.4	1.6	2.4	6.1	0.4	-1.4	2.7	0.9	1.2
이탈리아	실질 GDP	0.0	0.1	0.3	0.4	0.1	0.2	0.8	0.4	0.1	0.3	0.2	0.9
	민간소비	0.1	0.3	-0.7	-0.2	0.1	-0.1	1.6	0.9	-0.3	-0.2	0.6	1.4
	고정자본투자	0.7	-2.3	0.6	0.4	0.4	0.5	1.6	1.0	0.4	1.5	1.3	2.9
	수출	1.6	2.7	1.4	1.3	-1.2	1.7	4.4	-0.7	2.2	0.3	1.9	2.4
	수입	0.3	2.7	4.0	1.3	0.0	1.6	4.4	-1.1	2.2	1.0	2.2	2.4
스페인	실질 GDP	0.7	1.4	1.0	0.8	0.9	0.8	3.2	0.8	0.8	0.7	0.7	3.2
	민간소비	0.1	1.6	1.2	0.5	0.4	0.6	2.9	0.2	-0.6	0.5	-0.2	3.2
	고정자본투자	1.2	3.8	2.4	2.3	0.7	0.9	6.0	0.4	1.4	-0.1	0.5	3.1
	수출	0.4	4.2	1.3	0.9	2.2	0.5	4.9	0.2	3.4	-1.2	2.0	4.4
	수입	0.7	4.2	1.3	1.7	2.3	0.6	4.9	-0.2	2.6	-2.0	1.8	4.4
영국	실질 GDP	0.8	3.1	0.3	0.5	0.3	0.7	2.2	0.2	0.6	0.6	0.7	1.8
	민간소비	-0.2	2.2	0.4	0.9	0.6	-0.2	2.4	0.4	0.1	0.0	0.2	3.0
	고정자본투자	0.7	6.7	1.5	1.2	0.8	-0.9	3.4	0.1	-0.2	0.9	0.0	0.5
	수출	4.0	1.5	3.2	-0.7	-0.6	5.9	6.1	-2.9	1.2	-2.6	4.1	1.4
	수입	2.8	1.5	4.1	-2.3	0.6	2.1	6.1	0.3	0.4	1.3	-0.4	1.4

주: 전분기대비.
자료: Eurostat(2017. 3).

〈국채금리〉

■ 2016년 4/4분기 유로지역 평균 국채금리는 실물경기 회복세와 미국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상승함.

○ 독일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2bp 하락한 -0.68%,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26bp 상승한 0.19%를 기록함.

○ 영국의 국채 3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7bp 상승한 0.23%, 10년물 금리는 전분기대비 53bp 상승한 1.25%임.

〈표 23〉 유로지역의 국채금리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독일국채 3년물	-0.17	-0.18	-0.18	-0.29	-0.20	-0.44	-0.53	-0.66	-0.68	-0.58	-0.71	-0.74
독일국채 10년물	0.35	0.52	0.70	0.56	0.53	0.32	0.12	-0.07	0.19	0.14	0.35	0.31
영국국채 3년물	0.72	0.93	0.93	0.80	0.85	0.60	0.57	0.16	0.23	0.39	0.24	0.18
영국국채 10년물	1.64	1.86	1.91	1.87	1.82	1.56	1.37	0.72	1.25	1.22	1.38	1.25

주: 분기 평균값임.
자료: Bloomberg.

2. 국내경제

□ 2016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4%, 전분기대비 0.5%에 그침.

○ 건설투자(11.6%)의 높은 증가세 유지와 설비투자(2.0%)의 증가 전환에도 민간소비(1.5%) 위축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 2016년 4/4분기 경제동향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소매판매의 경우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2.5% 증가에 그치며 증가세가 둔화되었고, 설비투자는 수출개선으로 2.0% 증가로 전환하였고, 건설투자는 아파트 분양 호조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11.6% 증가함.

○ 산업생산은 서비스업 생산(2.1%)이 민간소비 위축으로 둔화된 가운데 수출 경기 호전으로 인한 광공업 생산(2.8%) 증가로 3.5% 증가함.

○ 총취업자 수는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에 그쳤고,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60.7%를, 그리고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3.2%를 나타냄.

○ 소비자물가는 유가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1.5% 상승하였고,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대비 4.3 하락한 97.3을 기록하며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이어감.

○ 수출은 수출상대국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1.8%(1,324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유가상승 등으로 4.1%(1,106억 달러)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217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경기둔화,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폭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에 그쳤으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도 3.2% 감소함.

□ 2016년 4/4분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전분기대비 0.4 상승한 100.5를,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분기대비 0.2 하락한 100.3을 기록하며 경기동향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2016년 4/4분기 국내경제는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생산과 투자가 반등하였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고용이 악화되는 등 경기가 여전히 불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가. 경제성장

■ 2016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은 건설투자의 높은 증가세 유지와 설비투자의 증가 전환에도 민간소비 위축으로 전년동기대비 2.4%, 전분기대비 0.5%에 그침.

○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1.5% 증가에 그침(〈표 25〉 참조).

○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의 수출개선에 힘입어 2.0% 증가로 전환함(〈표 26〉 참조).

○ 건설투자는 아파트 분양물량 호조 유지에 따라[10] 11.6% 증가하며 증가세가 확대됨. (〈표 26〉 참조).

○ 지식생산물투자는 R&D 투자를 중심으로 2.6% 증가함.

○ 수출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1.2% 증가하였고,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3.3% 증가함.[11]

■ 2016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민간소비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 가운데 건설투자의 증가세로 전년대비 2.8%를 기록함.

○ 건설투자가 10.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2.1%) 및 설비투자(△2.3%)의 부진을 상쇄함.

○ 지출항목별 연간 성장기여도는 민간소비 1.2%p, 건설투자 1.6%p, 설비투자 -0.2%p, 순수출 -0.7%p 등으로 나타남.

〈표 24〉 지출 항목별 실질 GDP 증감률

(단위: %)

구분	2015					2016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2.6 (0.8)	2.4 (0.4)	3.0 (1.3)	3.2 (0.7)	2.8	2.9 (0.5)	3.4 (0.9)	2.6 (0.5)	2.4 (0.5)	2.8
민간소비	1.5	1.7	2.2	3.4	2.2	2.3	3.5	2.7	1.5	2.5
설비투자	5.4	4.3	6.0	3.1	4.7	-4.6	-2.9	-3.9	2.0	-2.3
건설투자	4.0	4.6	7.5	9.6	6.6	9.0	10.6	11.2	11.6	10.7
지식생산물투자	2.1	1.2	1.4	2.3	1.8	1.0	2.7	2.7	2.6	2.3
수출	-0.5	-1.4	-0.4	1.7	-0.1	1.3	2.6	3.4	1.2	2.1
수입	0.9	0.4	2.0	5.0	2.1	3.4	4.8	6.5	3.3	4.5

주: 2008 SNA, 2010년 연쇄가격 기준, 원계열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괄호는 계절조정계열 전분기대비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10) 한국은행(2017. 1), 『경제전망보고서』.
11) 한국은행 보도자료(2017. 1. 25), "2016년 4/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

나. 경제동향

〈소비 및 투자〉

■ 2016년 4/4분기 소매판매는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12]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13]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에 그치며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됨.[14]

○ 1월에는 비내구재(7.5%) 판매가 크게 늘며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하였고, 2월에는 비내구재(△2.7%)와 준내구재(△0.8%) 판매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승용차 등 내구재(7.5%) 판매가 늘어 0.5% 증가함.

○ 2016년 4/4분기 내구재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0.1% 증가에 그쳤으나,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1% 증가하였고 2월에는 승용차 판매 호조로 7.5% 증가함.

○ 의복 및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 판매는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로 인해[15] 의복 판매가 크게 감소하며[16] 전년동기대비 0.4% 증가에 그쳤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0%, 0.8% 감소함.

○ 음식료품,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 판매는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하였으며,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7.5% 증가하였으나 2월에는 2.7% 감소함.

■ 2016년 연간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대비 0.2%p 상승한 4.3%를 기록함.

○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격이 비싸고 사용기간이 긴 내구재 판매 증가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고 상대적으로 값이 싸고 사용기간이 짧은 비내구재 판매가 전년대비 증가함.

- 내구재 판매 증가율은 전년대비 5.5%p 하락한 4.5%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고, 비내구재 판매 증가율은 전년대비 1.7%p 상승한 4.8%를 기록함.

---

12) 코리아세일페스타(2016년 9~10월),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2016년 12월 ~ 2017년 6월) 등.
13) 〈표 29〉 참조.
14) 한국은행(2017. 1),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2017. 2. 6), 『조사통계월보 1월호』.
15) (평년 12월) 1.5℃, ('16. 12월) 3.1℃.
16) 한국은행(2017. 3. 3), 『조사통계월보 2월호』.

〈표 25〉 소비 관련 지표[1)]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2)]	연간[2)]	1월[2)]	2월[2)]
민간소비	3.4	2.2	2.3	3.5	2.7	1.5	2.5		
소매판매	6.3	4.1	5.0	5.9	3.5	2.5	4.3	4.2	0.5
내구재	16.1	10.0	6.4	11.1	1.1	0.1	4.5	2.1	7.5
* 승용차	29.5	21.2	8.5	16.5	-9.8	-3.6	2.5	3.3	9.0
준내구재	1.5	-1.1	2.3	4.4	3.5	0.4	2.5	-1.0	-0.8
비내구재	3.3	3.1	5.3	3.9	4.9	5.0	4.8	7.5	-2.7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6년 4/4분기 설비투자는 수출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0% 증가로 전환함.

○ 2016년 4/4분기 설비투자지수는 반도체 등 IT업종의 글로벌 업황 개선에 따른 설비확충 등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17)] 전년동기대비 5.9% 상승함.

- 1월과 2월 설비투자지수는 기계류 투자 확대가 이어지며 전년동월대비 각각 10.7%, 19.5% 상승함.

○ 2016년 4/4분기 설비투자의 선행지수인 국내기계수주[18)]는 향후 글로벌 경제여건 개선 및 IT 업종 투자수요 확대에 따른 투자압력 증대로[19)] 전년동기대비 16.0% 증가함.

- 1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등 공공부문 및 전자・영상음향통신업 등 민간부문 모두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35.9% 증가함.[20)]
- 2월 국내기계수주는 전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운수업, 도소매업 등 민간부문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12.1% 증가함.[21)]

■ 2016년 연간 설비투자는 수출부진, 제조업 평균가동률 하락,[22)]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기업투자 위축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여 2009년(△7.7%)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설비투자지수는 1.3% 하락하였고, 국내기계수주는 4/4분기 개선으로 3.8% 증가함.

17) 기획재정부(2017. 2. 1), 『'16. 12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8) 기계수주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민간수요(제조업, 비제조업), 공공수요로 분류됨.
19) 한국은행(2017. 1), 『경제전망보고서』.
20) 통계청 보도자료(2017. 3. 2), "2017년 1월 산업활동동향".
21) 통계청 보도자료(2017. 3. 31), "2017년 2월 산업활동동향".
22) 2016년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1998년(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제조업 평균가동률(%, 통계청): ('11)80.5, ('12)78.5, ('13) 76.5, ('14)76.1, ('15)74.5, ('16)72.6

〈표 26〉 투자 관련 지표[1)]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2)]	연간[2)]	1월[2)]	2월[2)]
설비투자	3.1	4.7	-4.6	-2.9	-3.9	2.0	-2.3		
설비투자지수	2.0	6.9	-7.6	0.6	-4.7	5.9	-1.3	10.7	19.5
기계류	-7.3	3.6	-13.0	-7.6	0.4	12.0	-2.2	19.2	25.6
운송장비	26.6	15.0	8.3	20.9	-15.7	-6.1	0.9	-8.2	5.8
국내기계수주[3)]	6.3	-3.9	-0.6	-3.0	3.3	16.0	3.8	35.9	12.1
건설투자	9.6	6.6	9.0	10.6	11.2	11.6	10.7		
건설기성(불변)	10.7	5.0	13.2	15.8	14.5	17.7	15.4	13.4	22.6
건축	17.6	7.3	22.9	27.1	23.2	28.8	25.7	22.5	29.8
토목	0.4	1.2	-3.1	-3.2	-2.3	-1.9	-2.6	-6.3	6.5
국내건설수주(경상)	39.6	48.4	13.9	-6.7	1.3	26.0	8.4	16.6	22.6
건축	37.7	50.5	13.5	1.7	3.6	39.7	14.5	38.6	-9.4
토목	44.6	42.6	15.1	-32.4	-6.4	-6.8	-9.4	-30.2	171.2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선박제외.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6년 4/4분기 건설투자는 대출금리 상승[23)]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강화정책[24)] 등에도 불구하고 2015년 이후 늘어난 분양물건[25)]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함.

○ 건설기성(불변)[26)]은 건축공사 실적이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함.

- 1월 건설기성은 건축부문의 높은 증가세 유지로 전년동월대비 13.4% 증가함.

- 2월 건설기성은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2.6% 증가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경상)는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종료(2017년 말) 및 주택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조기분양으로[27)] 건축을 중심으로

23) 예금은행 가중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연리%, 한국은행): ('16. 1분기) 3.02, (2분기) 2.86, (3분기) 2.72, (4분기) 3.02

24)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위해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청약자격 등을 강화함(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11. 3),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25) 수주부터 약 2년 정도의 건설기성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 아파트 분양물건(52.5만 호) 호조는 2017년까지 건설기성 증대요인으로 작용함(한국은행(2017. 1), 『경제전망보고서』).
아파트 분양물건(만 호, 국토교통부): ('13) 29.9, ('14) 34.5, ('15) 52.5, ('16) 46.9

26) 건설기성은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실적을 금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공사대금의 청구나 수취 여부와는 무관하며 공사비 중 지가를 제외하고 발주자공급 원자재비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임(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용어설명(http://www.kostat.go.kr)).

27) 국회예산정책처(2017. 2), 『NABO 경제동향&이슈』.

큰 폭으로 증가, 전년동기대비 26.0% 증가함.

- 1월 국내건설수주는 건축부문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 반면 정부의 SOC예산 축소[28] 등으로 인한 공공, 토목 부문 위축으로 전년동월대비 16.6% 증가에 그침.[29]
- 2월 국내건설수주는 건축부문에서 감소하였으나 발전 · 통신, 항만 · 공항 등 토목(171.2%)이 전년동월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2.6% 증가함.[30]

■ 2016년 연간 건설투자는 저금리로 증가한 유동성이 주택 재건축 투자로 이어짐에 따라 10.7% 증가하며 1993년(11.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건설기성은 108.7조 원으로 통계집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하며 15.4% 증가하였고, 건설수주도 145.8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8.4% 증가함.

〈산업생산〉

■ 2016년 4/4분기 산업생산의 경우 수출경기 호전에 따른 광공업 생산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3.5% 증가함.

○ 2016년 4/4분기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업계 파업 종료, 신형 스마트폰 단종 영향 감소 등으로[31] 전년동기대비 2.8%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임.

- 1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생산이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전자부품 등 ICT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증가함.
- 2월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생산이 내수 및 수출 호조 등으로 반등하며 전년동월대비 6.6% 증가함.

○ 2016년 4/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민간소비 위축에 따른 숙박 및 음식점업(△3.9%) 등 관련 업종의 생산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2.1% 증가에 그침.

- 1월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업(△6.2%)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금융 및 보험업(5.4%), 부동산 및 임대업(1.9%)이 증가세를 유지하며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함.
- 2월 서비스업 생산도 금융 및 보험업(7.3%)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운수업(△

28) 2016년 23.7조 원 → 2017년 22.1조 원(한국은행(2017. 1), 『경제전망보고서』)
29) 2016년 12월(43.7%), 2016년 4분기(26.0%)에 비해 증가율이 낮아짐.
30) 통계청 보도자료(2017. 3. 31), "2017년 2월 산업활동동향".
3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2. 29), "'16. 11월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0.9%), 숙박 및 음식점업(△1.8%) 등의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에 그침.

■ 2016년 연간 산업생산은 광공업 부진 속에 서비스업이 양호한 증가세를 나타내며 3.0% 증가함.

○ 광공업은 하반기 수출 회복에 따른 ICT 생산 확대로 1.0%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냈고, 서비스업은 민간소비 관련 업종 부진 속에 금융 및 보험업 등이 호조를 보이며 3.0% 증가함.

〈표 27〉 산업 생산 관련 지표[1)]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2)]	연간[2)]	1월[2)]	2월[2)]
전산업 생산[3)]	2.7	1.9	2.1	3.2	3.0	3.5	3.0	3.5	4.2
광공업	0.4	-0.3	-0.3	0.7	0.5	2.8	1.0	1.4	6.6
제조업	0.6	-0.3	-0.5	0.9	0.6	2.9	1.0	1.5	7.0
자동차	1.8	1.3	0.0	-3.5	-10.4	1.8	-2.8	-8.7	11.9
ICT	6.7	1.3	0.1	7.0	8.3	4.1	5.0	12.8	2.4
서비스업	3.3	2.9	2.8	3.5	3.6	2.1	3.0	2.7	2.5
도매 및 소매업	4.3	1.8	2.9	4.1	2.7	2.2	3.0	2.6	0.3
운수업	0.4	1.2	1.8	4.1	3.5	-1.5	1.9	0.4	-0.9
숙박 및 음식점업	-1.2	-2.0	-0.6	1.8	1.0	-3.9	-0.5	-6.2	-1.8
금융 및 보험업	6.3	9.1	6.4	4.2	6.5	6.5	5.9	5.4	7.3
부동산 및 임대업	6.1	8.4	3.7	-0.2	3.7	2.3	2.3	1.9	4.5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잠정치.
3) 농림어업 제외.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고용 및 물가〉

■ 2016년 4/4분기 총취업자 수는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 지속으로 전년동기대비 1.2% 증가에 그쳤으며, 고용률은 60.7%, 실업률은 3.2%를 기록함.

○ 1월 총취업자 수는 제조업 인력 수요 감소[32]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0% 증가에 그쳤으며, 2월에는 건설업 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제조업 고용부진이 다소 완화되며[33] 1.5% 증가함.

- 2016년 4/4분기 청년취업자 수의 경우 신규채용 위축으로[34] 전년동기대비 0.2% 증가에 그쳤고, 1월과 2월에도 각각 0.3%, 0.1% 감소함.

○ 고용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60.7%를 기록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58.9%, 59.1%를 나타냄.

○ 실업률은 전분기대비 0.4%p 하락한 3.2%를 기록하였으며, 1월에는 3.8%, 2월에는 5.0%[35]를 기록함.

- 청년실업률의 경우 전분기대비 0.9%p 하락한 8.4%를 기록하였으며, 1월에는 구직활동 둔화로 실업자가 감소하며[36] 전월(9.5%)에 비해 크게 하락한 8.6%를 나타냈고, 2월에는 계절적 요인[37]으로 상승하며 12.3%를 나타냄.

■ 2016년 연간 취업자 수는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1.2% 증가에 그치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3%) 이래 최저 증가율을 보임.

○ 고용률은 청년과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로 역대최고치인 60.4%를 기록하였으나 영세 자영업자 증가 및 청년실업률 상승 등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함.[38]

- 자영업자는 조기은퇴자, 구조조정 실직자 유입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됨.
- 청년실업률은 9.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32) 기획재정부(2017. 2. 15), 『'17. 1월 고용동향』.
33) 기획재정부(2017. 3. 15), 『'17. 2월 고용동향』.
34) 기획재정부(2017. 1. 11), 『'16. 12월 고용동향』.
35) 2월 기준으로는 2001년 5.5% 이후 최고치임.
36) 기획재정부(2017. 2. 15), 『'17. 1월 고용동향』.
37) 2월 청년실업률은 졸업, 공무원 원서접수 등 계절적 요인으로 다른 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월평균 청년실업률('11~'16년, %) : (2월 제외) 8.4, (2월) 10.1 (기획재정부(2017. 3. 15), 『'17. 2월 고용동향』)
38) 기획재정부(2017. 1. 11), 『'16. 12월 고용동향』.

장년층의 노동시장 잔류 확대, 청년층(15~29세)의 구직 포기[39] 등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적체현상이 심화됨.

■ 2016년 4/4분기 산업별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광공업의 경우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 여건 악화로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건설업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됨.[40]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양호한 기상여건, 기저효과 등[41]으로 전년동기대비 1.0% 감소하며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1월과 2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1.0% 감소에 그침.

○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42]는 전년동기대비 2.3% 감소한데 이어, 1월에는 구조조정 영향 확대와 기저효과 등으로[43] 3.4% 감소하였고, 2월에는 수출·생산 회복 등으로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며[44] 1.9% 감소함.

○ SOC 및 기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건설업 및 숙박·음식업 등의 증가로 2.1% 증가함.

- 기상여건, 기저효과, 건설경기 호조 등으로 건설업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고 숙박·음식업의 경우 자영업자 및 일용직 등 단기고용 증가를 수반한 증가세를 이어감.[45]
- 1월과 2월에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2.0%, 2.4% 증가하며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함.

■ 2016년 연간 산업별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이 영세 고령농 은퇴 증가로 감소세를 지속하였고, 제조업은 수출부진 및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SOC 및 기타서비스업은 건설경기 호조 및 2015년 메르스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함.[46]

○ 농림어업은 4.4% 감소세를 이어갔고, 제조업이 0.1% 감소로 전환된 가운데 SOC 및 기타서비스업이 1.8% 증가하며 고용 증가를 주도함.

---

39) 2016년 말 기준 청년 비경제활동인구는 510만 4천 명으로 41개월 만에 증가(0.1%)로 전환함.
40) 기획재정부(2017. 1. 11), 『'16. 12월 고용동향』.
41) 기획재정부(2016. 12. 14), 『'16. 11월 고용동향』.
42) 제조업 포함.
43) 기획재정부(2017. 2. 15), 『'17. 1월 고용동향』.
44) 기획재정부(2017. 3. 15), 『'17. 2월 고용동향』.
45) 기획재정부(2017. 1. 11), 『'16. 12월 고용동향』.
46) 기획재정부(2017. 1. 11), 『'16. 12월 고용동향』.

〈표 28〉 고용 관련 지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총취업자[1]	1.5	1.3	1.1	1.1	1.2	1.2	1.2	1.0	1.5
청년취업자[1]	2.6	1.8	1.0	2.1	1.5	0.2	1.2	-0.3	-0.1
고용률[2]	60.5	60.3	59.1	60.8	61.1	60.7	60.4	58.9	59.1
실업률[3]	3.1	3.6	4.3	3.8	3.6	3.2	3.7	3.8	5.0
청년[4]실업률[3]	8.0	9.2	11.3	10.3	9.3	8.4	9.8	8.6	12.3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7.6	-7.4	-4.9	-5.7	-5.4	-1.0	-4.4	-1.0	-1.0
광공업	4.2	3.6	3.0	1.0	-1.5	-2.3	0.0	-3.4	-1.9
제조업	4.0	3.6	2.9	0.8	-1.6	-2.4	-0.1	-3.5	-2.0
SOC[5] 및 기타서비스업	1.5	1.4	1.1	1.7	2.3	2.1	1.8	2.0	2.4
건설업	-1.0	1.5	-0.5	-1.5	2.1	4.7	1.2	4.8	8.4
도・소매, 음식, 숙박	-0.6	1.2	-0.9	0.7	1.8	1.4	0.7	1.7	2.1
전기, 운수, 통신, 금융	2.3	0.7	1.5	0.2	0.6	0.5	0.7	-1.4	-0.7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3.1	1.8	2.5	3.4	3.3	2.5	2.9	2.9	2.4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으로 정의됨.
3)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으로 정의됨.
4) 청년은 15~29세 기준임.
5) SOC는 전기,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함.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 2016년 4/4분기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유가상승세로[47] 전년동기대비 1.5% 상승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농축수산물 가격 급등 및 석유류 가격 상승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2.0%, 1.9% 상승함.

○ 2016년 4/4분기 상품물가는 12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며 0.7% 상승하였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9%, 1.7% 상승함.

- 농축수산물(7.5%)은 조류인플루엔자(AI) 창궐[48] 및 채소가격 급등으로 상승하였고, 공업제품(0.4%)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합의[49]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50]으로 인해 상

47) 한국은행(2017. 1), 『통화신용정책보고서』.
48) 2016년 11월 16일 전남 해남,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됨.
49)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은 2016년 11월 30일 정례회의에서 하루 최대 생산량을 3,250만 배럴로 120만 배럴 줄이는 것에 합의함.
50) 국제유가(Dubai유 기준, Bloomberg)
(1달러/배럴, 기간 중 평균) 2016년 (11월) 43.77, (12월) 51.78, 2017년 (1월) 53.37, (2월) 54.17

승 전환한 한편, 전기 · 수도 · 가스(△8.7%)의 경우 도시가스요금 인상[51] 등으로 하락폭이 축소됨.

- 1월 중 상품물가는 설을 앞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16년 1월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9% 상승함.[52]
- 2월 중 상품물가는 석유류 오름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상승폭 축소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상승함.[53]

○ 2016년 4/4분기 서비스물가는 집세 상승세 둔화와 공공서비스 물가 안정으로 2.1% 상승에 그쳤으며, 1월과 2월에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2.2%, 2.1% 상승함.

■ 2016년 연간 소비자물가는 수요측 상승압력이 미약한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 등 공급측 하방압력과 전기료 인하 등 제도적 요인에 의해[54] 상품물가가 약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1.0% 상승에 그침.

○ 상품물가의 경우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0.6% 하락함.

- 농축수산물은 연초 한파 및 폭설, 여름철 폭염 및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3.8% 상승함.
- 공업제품은 저유가에 따른 석유류 가격 하락, 담뱃값 인상효과 소멸 등으로 0.5% 하락함.
- 전기 · 수도 · 가스의 경우 전기요금(△4.1%), 도시가스(△17.3%) 인하로 9.2% 하락함.

○ 서비스물가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중심으로 2.3% 상승하며 완만한 오름세를 보임.

- 집세의 경우 신규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전 · 월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며 1.9% 상승에 그침.
- 공공서비스는 1.5% 상승하며 안정된 수준을 보였으며, 개인서비스는 외식비(11.7%), 보험 서비스료(23.5%) 등을 중심으로 2.7% 상승함.

■ 2016년 4/4분기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대비 4.3 하락한 97.3을 나타내며 기준치(100)를 하회함.

51) 2016년 11월 1일 5.6% 인상.
5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2. 2), "2017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5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3. 3), "2017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54) 석유류가격과 전기 · 수도 · 가스 요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8%p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한국은행(2017. 2. 6), 『조사통계월보 2017년 1월호』).

○ 1월에는 93.3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5.0)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2월에는 94.4로 1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은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연간 소비자심리지수는 99.5를 나타내며 전년에 비해 3.2 하락함.

〈표 29〉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소비심리[1)]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소비자심리지수[2)]	104.5	102.7	99.3	99.9	101.6	97.3	99.5	93.3	94.4
소비자물가 상승률[3)]	0.9	0.7	0.9	0.8	0.7	1.5	1.0	2.0	1.9
〈품목 성질별 물가지수 상승률〉									
상품	-0.5	-0.7	-1.0	-1.0	-1.1	0.7	-0.6	1.9	1.7
농축수산물	2.3	2.0	3.7	1.1	3.1	7.5	3.8	8.5	4.3
공업제품	-0.1	-0.2	-1.1	-0.7	-0.5	0.4	-0.5	1.6	2.4
전기 · 수도 · 가스	-7.2	-7.4	-8.2	-7.0	-13.0	-8.7	-9.2	-8.3	-8.3
서비스	2.1	1.8	2.4	2.4	2.2	2.1	2.3	2.2	2.1
집세	2.5	2.5	2.0	1.9	1.8	1.7	1.9	1.7	1.7
공공서비스	1.8	1.2	2.0	1.9	1.0	0.9	1.5	1.1	1.1
개인서비스	2.1	1.9	2.6	2.7	2.8	2.7	2.7	2.8	2.7

주: 1) 전년동기(월)대비.
2)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년 ~ 2016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3)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소급 변경됨.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대외거래〉

■ 2016년 4/4분기 수출은 수출상대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 및 환율 상승, 수출단가회복[55)] 등으로[56)] 전년동기대비 1.8%(1,324억 달러)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유가상승 등으로 4.1% 증가(1,106억 달러)하며 무역수지는 217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수출의 경우, 식료 및 직접소비재(10.6%)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유가상승 및 반도체,

55) 최근 반도체 · 철강 · 디스플레이패널 등의 수출단가 상승, 국제유가 상승에 주로 기인하여 수출입 단가가 증가로 반전함(한국은행(2017. 1), 『경제전망보고서』.
56)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 2. 2), 『2016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17년 1분기 전망』.

디스플레이 등 IT 제품 수출 증가로 원료 및 연료(5.0%), 중화학 공업품(1.5%) 등이 증가로 전환함.

- 1월 수출은 원료 및 연료(55.6%), 중화학공업품(9.2%)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1.1%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임.[57]
- 2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20.2% 증가하며 수출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58]

○ 수입의 경우, 소비재(2.5%)의 증가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원자재(3.8%)가 유가상승으로 상승 전환하였고, 자본재(5.1%)도 반도체 · 평판DP 제조용 장비 중심으로 증가 전환됨.[59]

- 1월 수입은 비중이 큰 원자재(29.1%)와 자본재(14.5%) 수입 증가세 확대로 19.7% 증가함.[60]
- 2월 수입도 원자재(38.7%)와 자본재(13.7%)가 큰 폭의 증가를 이어가며 23.9% 증가함.[61]

■ 2016년 연간 수출은 5.9%(4,954억 달러) 감소하였고, 수입은 6.9%(4,062억 달러)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892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연간 수출의 경우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물동량 감소, 주력품목의 단가하락, 자동차 파업 및 신형 스마트폰 단종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분기별로는 지속적으로 개선됨.[62]

○ 연간 수입의 경우 수입의 약 50%를 차지하는 원자재 수입이 유가하락 등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총수입도 감소하였으나, 분기별로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63]

---

57) '13. 1월 이후 4년 만에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수출품목, 시장, 주체, 방식 등 수출구조 혁신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반도체가 메모리단가 상승으로 사상 최대 월간 수출실적 기록(64.1억 불), 석유제품이 50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증가, 석유화학이 '14. 12월 이후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금액 증가를 주도함(산업통상자원부(2017. 2. 1), 2017년 1월 수출입 동향).

58) '11. 9월 이후 65개월 만에 2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 및 '12. 2월 이후 5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 2월 수출금액(463억 원)으로도 '12. 2월 이후 최대 수출금액(432억 원)을 기록함(산업통상자원부(2017. 3. 1), 2017년 2월 수출입 동향).

59)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1. 1), "2016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7년 수출입 전망".

60) '12. 2월 이후 59개월 만에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함(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2. 1), "2017년 1월 수출입 동향").

61) '11. 12월 이후 62개월 만에 2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를 기록함(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3. 1), "2017년 2월 수출입 동향").

6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1. 1), "2016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7년 수출입 전망".

6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7. 1. 1), "2016년(12월, 전체) 수출입 동향 및 2017년 수출입 전망".

〈표 30〉 주요 품목별 수출입 증감률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수출	식료 및 직접소비재	-1.3	-2.1	5.0	5.3	10.9	10.6	8.0	3.8	20.7
	원료 및 연료	-36.0	-33.3	-31.3	-20.5	-16.0	5.0	-16.4	55.6	64.8
	경공업 제품	-8.6	-8.4	-5.5	-0.8	5.8	1.2	0.2	-1.7	7.4
	중화학 공업품	-9.8	-4.9	-13.0	-6.1	-5.0	1.5	-5.7	9.2	18.1
	전체	-12.0	-8.0	-13.7	-6.7	-5.0	1.8	-5.9	11.1	20.2
	금액	1,300.2	5,267.6	1,151.9	1,260.2	1,218.5	1,323.6	4,954.3	402.9	432.0
수입	소비재	0.5	2.1	-2.6	3.4	0.5	2.5	1.0	4.9	4.5
	원자재	-29.8	-29.6	-25.3	-18.6	-8.7	3.8	-12.8	29.1	38.7
	자본재	-4.0	1.3	-7.6	-3.2	-2.5	5.1	-2.0	14.5	13.7
	전체	-17.8	-16.9	-16.0	-10.1	-5.1	4.1	-6.9	19.7	23.9
	금액	1,062.7	4,365.0	938.3	993.0	1,024.6	1,105.9	4,061.9	375.0	361.3
무역수지		237.4	902.6	213.6	267.2	193.9	217.7	892.3	27.9	70.6

주: 1) 전년동기(월)대비 증감률.
2) 금액은 천만 달러에서 반올림함.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 2016년 4/4분기 지역별 수출은 아세안, EU, 중동, 일본에서 증가하였으며, 수입도 EU를 제외한 지역에서 증가함.

○ 수출의 경우 최대 교역국인 중국(△0.9%)이 평판 DP, 석유화학 등 수출 증가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것을 비롯하여 아세안의 경우 석유제품, 일반기계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12.5% 증가하는 등 대다수 지역으로의 수출이 회복세를 보임.[64]

- 1월 수출은 사드배치 논란[65]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월(9.7%)보다 높은 전년동기 대비 13.5%[66]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지속하였고,[67] 미국, 중남미를 제외한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함.

- 2월 수출은 중국이 4개월 연속 증가한 28.8%를[68] 기록한 가운데, 중동을 제외한 대

6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17. 2. 2), 『2016년 4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17년 1분기 전망』.
65)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의 반한 감정 고조로 직간접적인 경제 보복 조치 발생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
66) '13. 8월 이후 41개월 만에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나타냄.
67) 관세청(2017. 2. 15), 『2017년 1월 수출입 현황』.
68) '10. 11월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고 증가율임(산업통상자원부(2017. 3. 1), 2017년 2월 수출입 동향).

다수 주요 지역으로의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함.

○ 수입의 경우 중동지역이 원유 수입단가[69] 상승으로 전년동기대비 8.4% 상승하였고, EU(△4.7%)를 제외한 중국(1.2%), 일본(19.6%) 등 대다수 지역에서 증가함.

- 1월과 2월 중동으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59.2%, 63.7% 증가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감.

■ 2016년 연간 기준으로는 세계경기침체로 인한 교역 둔화 및 저유가,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 등으로 각 지역으로의 수출 및 수입이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분기별로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표 31〉 주요 지역별 수출입 현황

(단위: %)

구분		비중[1]	2015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수출	중국	25.1	-5.6	-15.8	-12.7	-8.0	-0.9	-9.3	13.5	28.8
	ASEAN	15.0	-11.5	-11.2	-1.3	-1.1	12.5	-0.4	18.9	31.3
	미국	13.4	-0.6	-3.3	-4.3	-8.8	-3.1	-4.8	-1.9	1.7
	EU	9.4	-6.9	6.6	-10.0	-8.4	0.9	-3.1	13.5	27.4
	중동	5.3	-12.6	-20.3	-22.2	-15.9	4.9	-13.8	8.2	-10.0
	중남미	5.1	-14.6	-28.7	-17.1	-11.7	-8.3	-17.1	-6.0	19.5
	일본	4.9	-20.5	-13.2	-14.0	3.5	6.1	-4.8	19.1	20.6
	전체	100.0	-8.0	-13.7	-6.7	-5.0	1.8	-5.9	11.1	20.2
수입	중국	21.4	0.2	-9.5	-3.0	-3.4	1.2	-3.6	15.4	9.4
	동남아	15.3	-10.8	-8.3	-2.4	0.8	4.7	-1.3	21.6	12.1
	중동	13.3	-42.5	-42.2	-29.9	-12.7	8.4	-21.0	59.2	63.7
	EU	12.8	-8.3	-11.6	-10.4	-10.3	-4.7	-9.3	-7.9	10.2
	일본	11.7	-14.7	-11.2	-3.7	11.4	19.6	3.5	21.5	31.0
	미국	10.6	-2.8	-4.7	-1.5	-6.2	5.0	-1.8	19.1	22.7
	호주	3.7	-19.5	-15.1	-17.5	-13.2	17.4	-7.7	30.7	22.7
	전체	100.0	-16.9	-16.0	-10.1	-5.1	4.1	-6.9	19.7	23.9

주: 1) 2016년 전체 수입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
2) 증감률은 전년동기(월)대비.
자료: 관세청, 「수출입 동향」.

69) 관세청(2017. 3. 15), 『2017년 2월 수출입 현황』.
- 원유 수입단가($/배럴): ('16. 10) 46.1, (11) 48.9, (12) 48.2, ('17. 1) 53.6, (2) 56.3
- 원유 수입단가 증감률(%): ('16. 10) △3.5, (11) 4.3, (12) 14.5, ('17. 1) 59.1, (2) 86.7

〈가계소득〉

■ 2016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경기둔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 증가폭 둔화로 전년동기대비 0.2% 증가에 그쳤으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도 3.2% 감소함.[70]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1.2만 원으로 0.2% 증가하였고, 실질 소득은 1.2% 감소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6.8만 원으로 3.2% 감소하였고, 실질 소비지출은 4.6% 감소함.

○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54.1만 원으로 0.4% 증가하였으며, 흑자액은 107.3만 원으로 9.7% 증가함.

- 처분가능소득대비 소비지출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전년동기대비 2.6%p 하락한 69.7%를 나타냄.
- 가계의 저축능력을 나타내는 흑자율은 전년동기대비 2.6% 상승한 30.3%를 기록함.

■ 2016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및 이전소득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며 전년대비 0.6% 증가에 그쳤고, 월평균 소비지출은 유가하락에 따른 교통비 및 주거비 하락에 기인하여 0.5% 감소함.[71]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39.9만 원으로 0.6% 증가하였으나, 실질 증가율은 0.4% 감소를 기록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55.0만 원으로 0.5% 감소하였고, 실질 소비지출은 1.5% 감소함.[72]

○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58.8만 원으로 0.7% 증가에 그쳤으나, 흑자액은 103.8만 원으로 3.8%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이는 소득의 증가보다는 지출 감소에 의존한 불황형 흑자를 의미함.
- 평균소비성향은 71.1%로 5년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흑자율은 28.9%를 나타냄.

7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2. 25), "'1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동향 분석".
7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2. 25), "'1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동향 분석".
72)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연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감소함.

〈표 32〉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1)]

(단위: %, %p, 만 원)

구분		2015		2016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430.2	437.3	455.5	430.6	444.5	431.2	439.9
	증가율	0.9	1.6	0.8	0.8	0.7	0.2	0.6
	실질 증가율[2)]	0.0	0.9	0.0	0.0	-0.1	-1.2	-0.4
처분가능 소득	금액	352.8	356.3	370.4	351.9	360.7	354.1	358.8
	증가율	0.7	1.9	1.0	1.0	0.7	0.4	0.7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금액	255.0	256.3	266.9	249.4	257.9	246.8	255.0
	증가율	1.7	0.5	0.6	0.0	0.7	-3.2	-0.5
	실질 증가율[2)]	0.8	-0.2	-0.3	-0.9	-0.1	-4.6	-1.5
흑자액	금액	97.8	100.0	103.5	102.5	102.8	107.3	103.8
	증가율	-1.9	5.6	1.9	3.6	0.8	9.7	3.8
평균소비성향[3)]		72.3	71.9	72.1	70.9	71.5	69.7	71.1
흑자율[4)]		27.7	28.1	27.9	29.1	28.5	30.3	28.9

주: 1) 전년동(분)기대비.
2) 실질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며 실질 증감률은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임. 201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새로운 물가지수를 적용한 실질금액 자료가 소급 변경됨.
3) 평균소비성향은 '(소비지출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4) 흑자율은 '(흑자액 ÷ 처분가능소득) × 100'으로 정의됨.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

다. 경기동향

■ 2016년 4/4분기 경기동향[73]을 살펴보면, 선행지수 순환변동치[74]가 전분기대비 0.4 상승한 100.5를 기록하였으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75]는 전분기대비 0.2 하락한 100.3을 기록함.

○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소비자기대지수와 건설수주액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하며 전분기대비 0.4 상승한 100.5를 기록함.

- 1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비자기대지수와 건설수주액 등이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등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월대비 0.1 상승한 100.7을 기록함.
- 2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비자기대지수와 건설수주액이 상승 전환하며 전월대비 0.2 상승한 100.9를 기록함.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경우 수입액 증가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업생산지수가 하락 전환하며 전분기대비 0.2 하락한 100.3을 기록함.

- 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소매판매액지수가 하락 전환하였으나,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수입액 등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0.2 상승한 100.7을 기록함.
-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가 하락 전환하였으나 건설기성액 등이 증가하며 전월대비 0.1 상승한 100.8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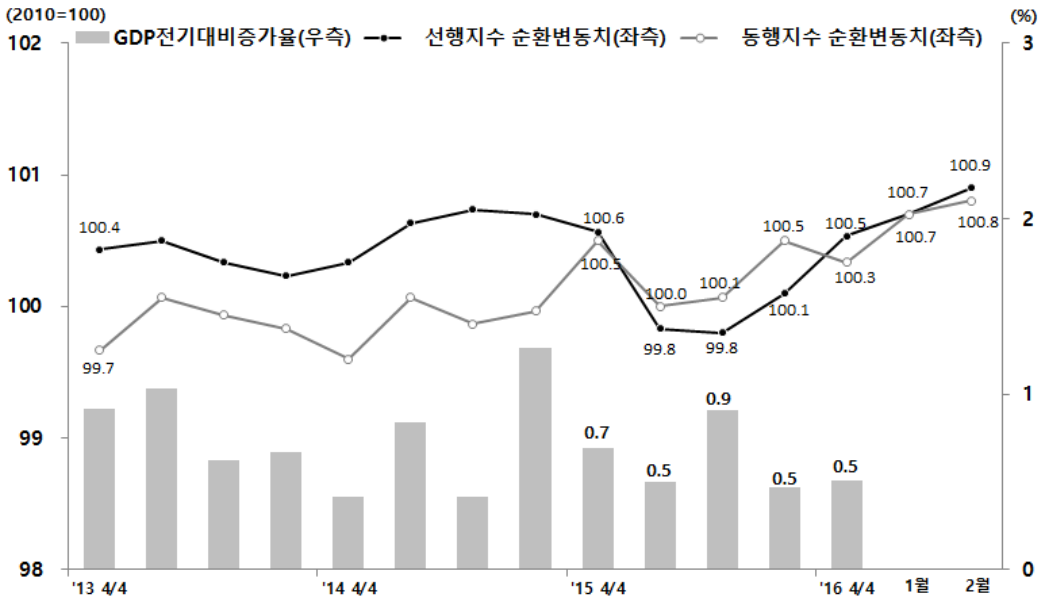
---

73) 통계청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경기종합지수의 경기설명력 향상을 위해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을 실시함(통계청 보도자료(2016. 6. 30), “제9차 경기종합지수 개편 결과 및 최근의 기준순환일 설정”). 이에 따라 계간보험동향 경기종합지수는 이를 기초해 작성함.

74)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소비자기대지수, 건설수주액, 기계류내수출하지수, 수출입물가비율, 구인구직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 8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75) 동행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 수 등 7개 지표를 종합하여 작성함.

〈그림 1〉 GDP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주: 2016년 4/4분기, 1월과 2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2016년 4/4분기 재고율[76]은 제조업 출하지수 상승(전분기대비 1.2), 재고지수 하락(1.8)으로 3.5%p 하락한 115.2%를 기록함.[77]

○ 1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1.5%p 상승한 113.3%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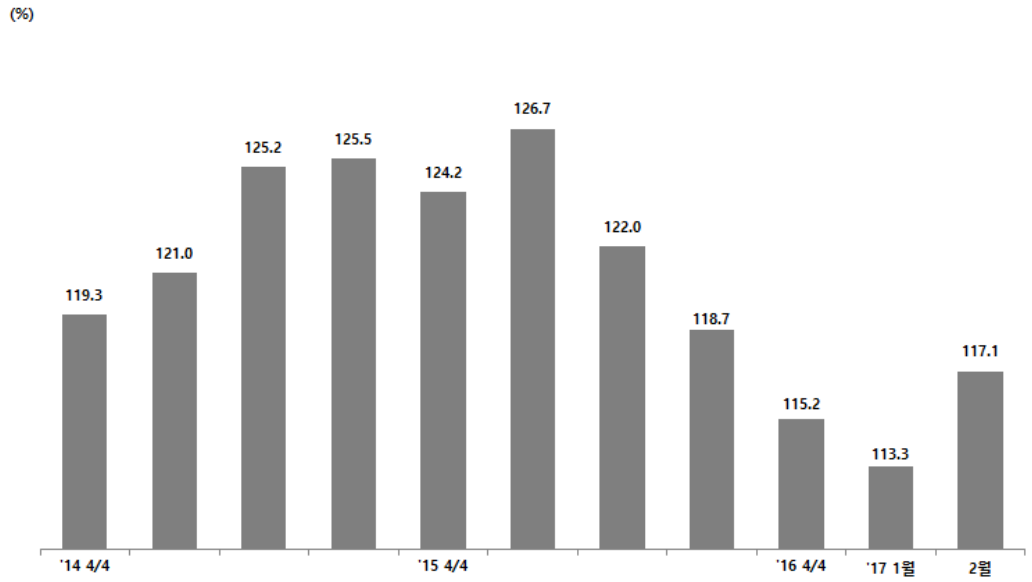
- 1월 제조업 출하는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석유정제, 금속가공, 화학제품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0.2% 증가하였으며, 재고는 기계장비, 자동차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1차금속 등의 증가로 전월대비 4.1% 증가함.[78]

○ 2월 재고율은 전월대비 3.8%p 상승한 117.1%를 나타냄.

- 2월 제조업 출하는 식료품,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감소하여 전월대비 3.6% 감소하였으며, 재고는 1차 금속, 자동차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화학제품,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하여 전월대비 1.7% 감소함.[79]

76) 재고율(재고－출하비율)은 출하액대비 재고액 비율을 나타내는 지수임. 경기가 호황일 경우 제품 판매 증가로 재고는 줄고 출하는 증가하게 되어 재고－출하비율은 하락하게 됨. 반면 경기가 불황에 진입할 경우 판매(출하)는 감소하기 시작하고 재고는 증가하므로 재고율 지수는 상승함.
77) 2016년 10월~2017년 2월 재고, 출하, 재고율은 잠정치임.
78) 통계청 보도자료(2017. 3. 2), “2017년 1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제조업 재고율[1)]



주: 1) 제조업의 출하지수에 대한 재고지수 비율 =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79) 통계청 보도자료(2017. 3. 31), “2017년 2월 산업활동동향”.

3. 국내금융

□ 2017년 1/4분기 국고채(3년, 5년, 10년 만기) 평균 금리는 각각 1.67%, 1.86%, 2.17%로 2016년 4/4분기(1.55%, 1.67%, 1.91%)보다 상승함.
- ○ 정책금리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1.25%로 동결됨.
- ○ 국고채 금리 상승의 원인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 발행임.

□ 2017년 1/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1,154.3원으로 전분기(1,157.4원)대비 하락하였고, 종합주가지수는 2,094.84로 전분기(2,021.29)대비 상승함.
- ○ 수출회복세 지속,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으로 원화가치가 약세를 보임.
- ○ 글로벌 증시 호조,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인한 국내 정치상황의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종합주가지수가 강세를 보임.

□ 2017년 1/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18,528.00으로 전분기(19,395.66)대비 하락하였으며,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PBR)은 각각 9.71, 0.75로 전분기(10.98, 0.81)대비 하락함.
- ○ KOSPI 보험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은(PBR)도 하락함.

〈금리〉

■ 2017년 1/4분기 정책금리는 1.25%로 동결됨(〈표 33〉 참고).
- ○ 2017년 2월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 유지를 결정함.
- ○ 금융통화위원회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속되고,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정책방향 및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유로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요인이라고 평가함.
- ○ 또한 국내 경제는 소비 부진으로 내수 회복세가 미약하였으나 수출 개선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함.

■ 2017년 1/4분기 평균 CD(91일) 금리는 전분기대비 5bp 상승한 1.49%임(〈표 33〉 참고).
- ○ 1월 평균 CD(91일) 금리는 1.50%, 2월과 3월은 각각 1.49%, 1.48%로 매월 하락세를 보임.

■ 2017년 1/4분기 국고채 3년, 5년, 10년 평균 금리는 모두 전분기대비 상승하여 각각 1.67%, 1.86%, 2.17%임(〈표 33〉 참고).

○ 1월 국고채 3년, 5년, 10년 금리는 트럼플레이션[80] 기대 약화,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 등으로 전월 평균 금리(1.69%, 1.87%, 2.16%)보다 하락한 1.64%, 1.82%, 2.11%를 기록함.

○ 2월 평균 국고채 금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 공개 예고 및 연준 옐런 의장의 금리인상 관련 발언, 우리나라의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발행 계획 발표[81] 등의 영향으로 1월 평균 금리보다 상승한 1.67%, 1.86%, 2.16%를 나타냄.

○ 3월 국고채 금리는 3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25 bp)으로 3년물 1.71%, 5년물 1.91%, 10년물 2.22%로 상승함.

〈표 33〉 금리 및 스프레드

(단위: %, %p)

구분	2016 1/4	2016 2/4	2016 3/4	2016 4/4	2017 1/4	전분기 대비	전년동기 대비
정책금리	1.50	1.25	1.25	1.25	1.25	-	-0.25
CD(91일)	1.65	1.54	1.35	1.44	1.49	0.05	-0.16
국고채(3년)	1.53	1.42	1.26	1.55	1.67	0.12	0.14
국고채(5년)	1.66	1.51	1.29	1.67	1.86	0.19	0.20
국고채(10년)	1.90	1.74	1.44	1.91	2.17	0.26	0.27
회사채(3년, AA-)	2.01	1.88	1.67	1.99	2.15	0.16	0.14
스프레드(회사채-국고채)	0.47	0.46	0.41	0.44	0.48	0.04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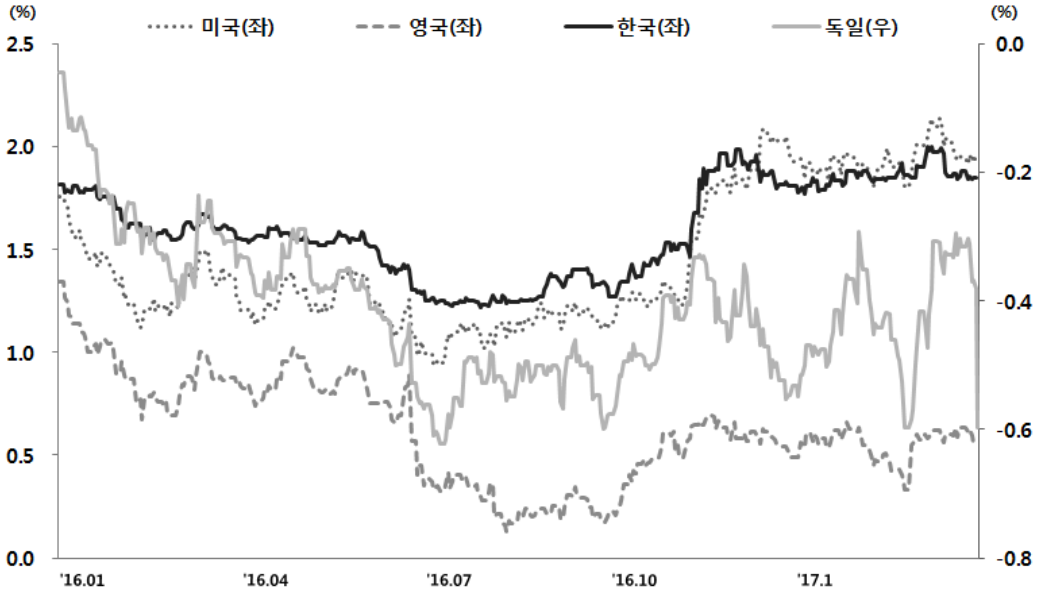
주 : 금리는 분기 평균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미국과 한국의 국채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상승하였지만, 트럼프케어 철회 등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의구심 등으로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3〉 참고).

○ 독일과 영국의 국채금리는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82]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ECB 총재의 디플레 위험 감소 발언[83]과 향후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으로 상승세로 전환함.

80) 미국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유발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말함.
8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7. 2. 20),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 발행".
82) 4월 예정인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전선(FN)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높음. 르펜 대표의 대선 공약은 프렉시트(프랑스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국민투표 실시, 유로존 탈퇴 후 '프랑' 화폐 복원 등임. 르펜 대표 당선 후 프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유럽 경제가 큰 영향을 끼치므로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로 투자자들이 모임.

〈그림 3〉 주요국의 국고채 5년 금리 추이



자료: Bloomberg.

■ 회사채(3년 만기, AA-) 금리는 2017년 1/4분기 평균 2.15%로 전분기대비 16bp 상승함(〈표 33〉 참고).

○ 1월 평균 회사채 금리는 2.10%, 2월과 3월은 각각 2.13%, 2.21%로 소폭 상승함.

○ 신용 스프레드(회사채와 국고채 간 금리차이)는 전분기대비 4bp 늘어나 평균 48bp임.

〈환율〉

■ 2017년 1/4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은 전분기대비 3.1원 하락한 평균 1,154.3원임(〈표 34〉 참고).

○ 1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84]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2.8원 상승한 1,185.1원을 기록함.

○ 2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2월 FOMC 회의 이후 금리 인상 기대 약화, 국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기조 및 수출 회복세 지속[85] 등으로 1월보다 40.2원 하락한 1,144.9원이었음.

83) 3월 9일 ECB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기자회견에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디플레이션 위험이 대체로 사라졌다고 평가함.

84) 12월 시간당 임금상승률 전년대비 2.9% 증가,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전년대비 2.1% 증가.

85) 수출증가율(전년동월대비, %): ('16. 10)△3.2 ('16. 11)+2.3 ('16. 12)+6.3 ('17. 1)+11.1 ('17. 2)+20.2

○ 3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미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전망[86] 및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1,134.8원을 기록함.

〈표 34〉 주요국 환율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2016				2017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원/달러	1,201.4	1,163.2	1,121.4	1,157.4	1,154.3	1,185.1	1,144.9	1,134.8
엔/달러	115.3	108.2	102.4	109.5	113.7	115.1	113.1	113.0
달러/유로	1.103	1.129	1.116	1.078	1.065	1.061	1.065	1.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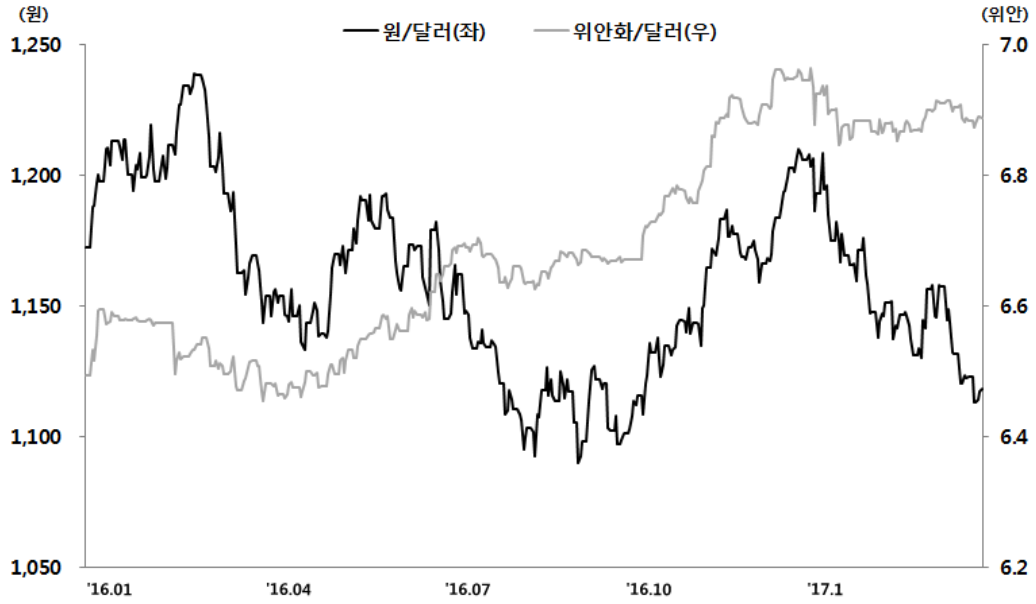
주: 환율은 분기 또는 월 평균 값임.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17년 1/4 분기 위안/달러 환율은 미국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 등으로 전분기대비 0.056위안 상승한 평균 6.889위안을 기록함.

○ 최근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위안/달러 환율이 보합세를 보임에 따라 위안/달러 환율과 원/달러 환율 간 상관관계도 약화됨(〈그림 4〉 참고).

86) 3월 FOMC에서 연준의 물가목표 운용에 대한 유연한(symmetric) 자세, 금리인상 전망치(금년 추가로 2차례) 유지 등으로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가 완화됨.

〈그림 4〉 위안/달러와 원/달러 환율 비교



자료: Bloomberg.

■ 2017년 1/4분기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 엔/달러 평균 환율은 상승하고,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하락함(〈표 34〉 참고).

○ 1월 엔/달러 환율은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 견해, 하드 브렉시트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대비 하락한 115.1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환율은 유로존 경제지표 개선,[87] ECB의 통화정책 유지 등으로 상승하여 1.061달러를 기록함.

○ 2월에는 일본 무역지표 악화[88]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세제개혁 우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엔/달러 평균 환율은 전월대비 하락한 113.1엔,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유럽 경기회복 기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재개 등으로 1.065달러를 나타냄.

○ 3월 엔/달러 평균 환율은 미국 트럼프 케어의 무산으로 하락하여 113.0엔을 기록하였으며, 달러/유로 평균 환율은 네덜란드 총선에서 극우당의 집권 실패와 FOMC 회의 이후 달러 약세가 반영되어 전월보다 상승한 1.069 달러임.

87) 유로존의 11월 경상수지 흑자폭(405억 유로)이 확대되고, 1월 소비자신뢰지수(-4.9, '15. 4월 이후 최고)가 상승한 가운데 '16. 3Q GDP대비 정부부채는 90.1%로 하락함. 또한 11월 실업률은 9.8%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지속한 가운데 12월 제조업 PMI는 54.9로 상승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1% 상승함.

88) 일본 1월 무역수지는 수입(전년대비 +8.5%) 증가로 인해 5개월만에 1.1조 엔 적자를 기록함.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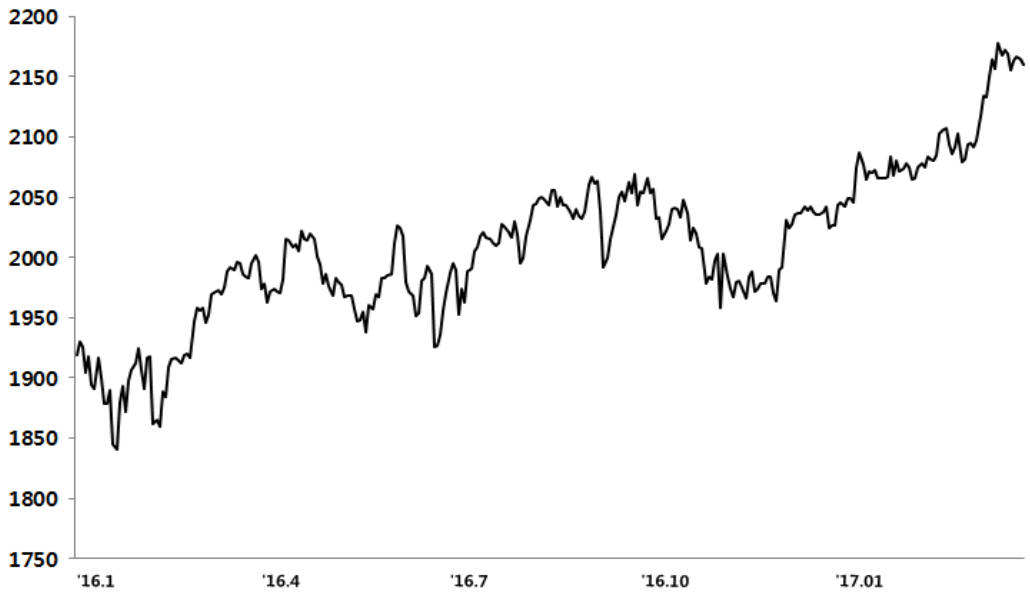
■ 2017년 1/4분기 종합주가지수는 전분기 평균 2,012.29보다 상승한 평균 2,094.84임(〈그림 5〉 참고).

○ 1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 매수세[89] 및 IT업종의 대형주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 평균주가지수 2,021.67보다 상승한 2061.73을 나타냄.

○ 2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082.80으로 글로벌 증시 호조,[90]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개선 기대, 수출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1월에 비해 상승하였음.

○ 3월 평균 종합주가지수는 2,136.17로 탄핵 인용에 따른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상승함.

〈그림 5〉 주가지수



주: 증권시장의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반영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장된 보통주 전 종목을 대상으로 1980년 1월 4일을 기준일로 하며, 당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시계열에 의한 연속지수를 산출하고 있음.
자료: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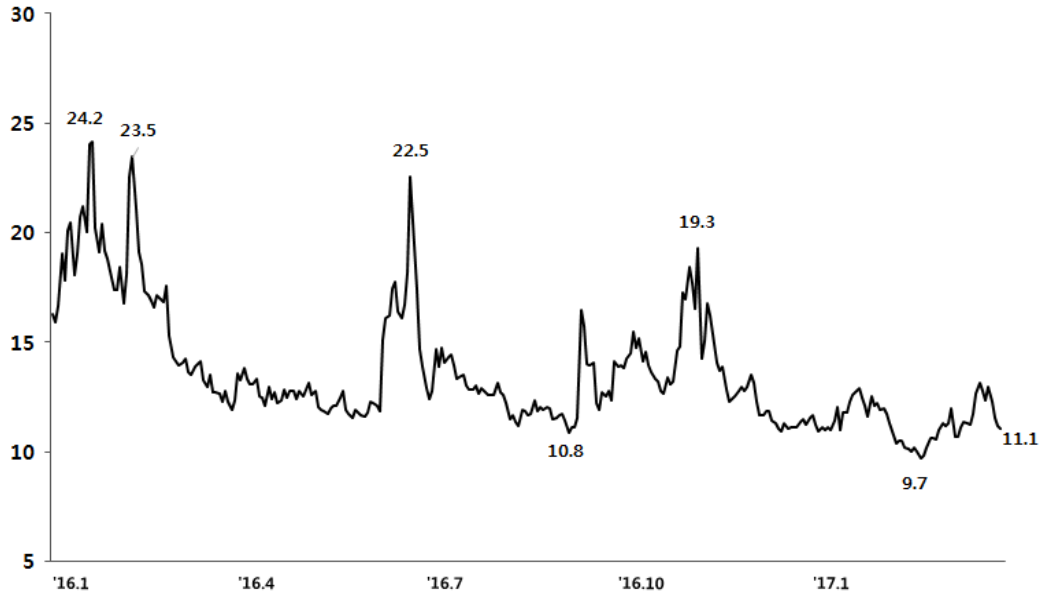
89) 2017년 1월 외국인 주식투자 순매수는 약 1조 4,900억 원임.
90) 2017년 2월 말 기준으로 미국 다우지수 20,812.24(전월대비 +4.8%), 나스닥지수 5,825.44(전월대비 +3.8%), 독일 DAX지수 11,834.41(전월대비 +2.6%), 일본 니케이지수 19,118.99(전월대비 +0.4%)

■ 2017년 1/4분기 변동성지수(VKOSPI)를 살펴보면 대내외 여건으로 상승·하락을 반복하고 있음 (〈그림 6〉 참고).

○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가지수가 오르면서 2월 22일 변동성지수가 2014년 이래 최저 수준인 9.7까지 하락함 .

○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과 FOMC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불안요소가 해소되면서 변동성지수는 하락세로 전환됨.

〈그림 6〉 변동성지수(VKOS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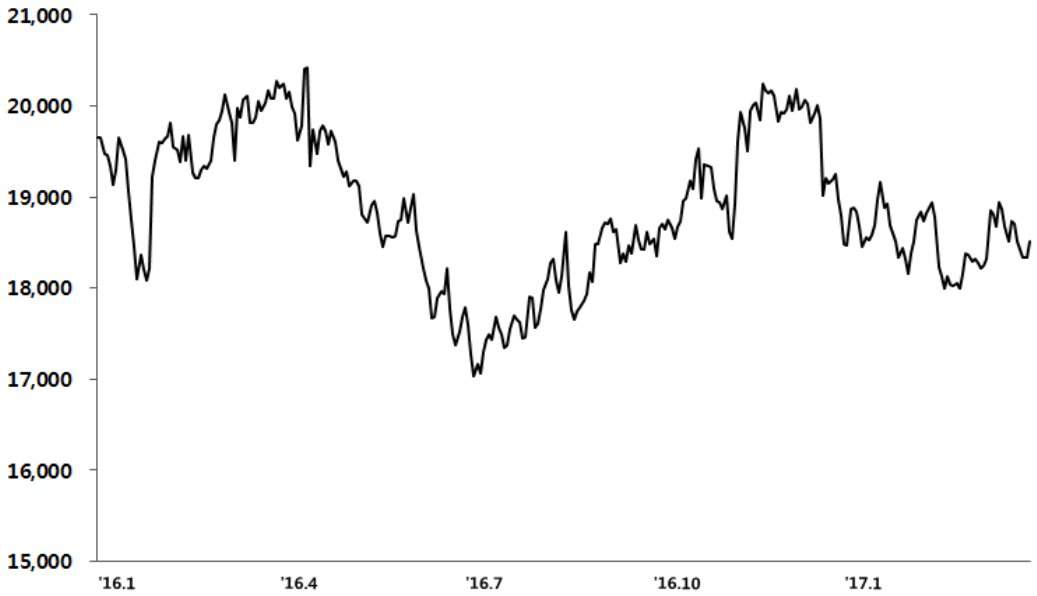
주: VKOSPI는 주식시장 변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KOSPI200 옵션가격을 이용하여 옵션투자자들이 예상하는 KOSPI200 지수의 미래 변동성을 측정한 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보험주가〉

■ 2017년 1/4분기 평균 KOSPI 보험지수는 전분기 평균 19,395.66보다 하락한 18,528.00임(〈그림 7〉 참고).

○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결정과 올해 예정된 IFRS17 기준서 공개, 신지급 여력제도 도입 관련 규제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임.

〈그림 7〉 KOSPI 보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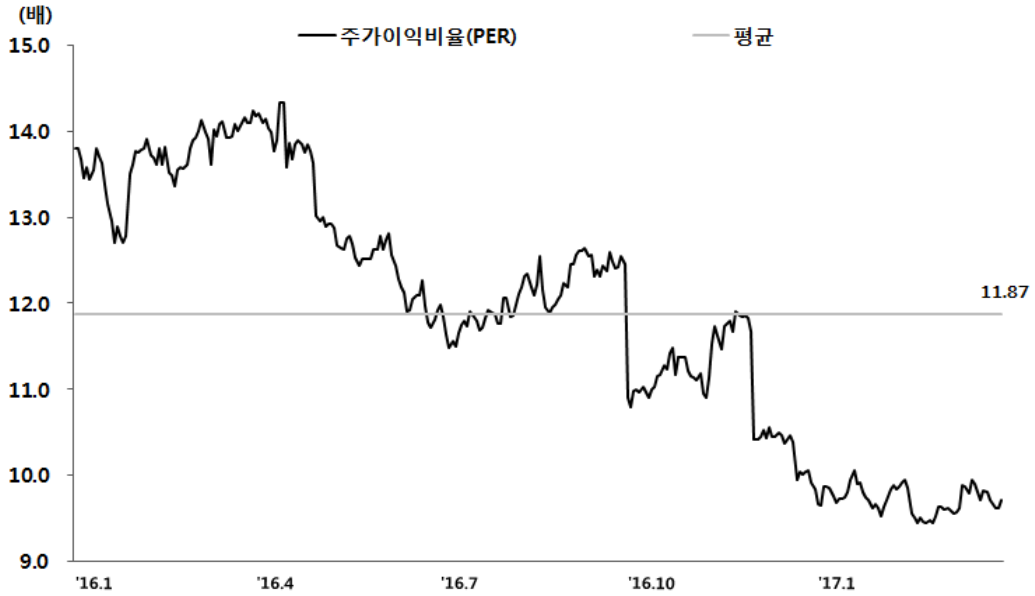


주: KOSPI 보험지수는 총 13개의 보험회사(생명보험 4개사, 손해보험 8개사, 재보험 1개사)를 구성종목으로 하여 산출하는 주가지수임.
자료: 한국거래소.

■ 2017년 1/4분기 평균 보험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PBR)은 각각 9.71과 0.75로 전분기 평균인 10.98과 0.81에 비하여 하락함(〈그림 8〉, 〈그림 9〉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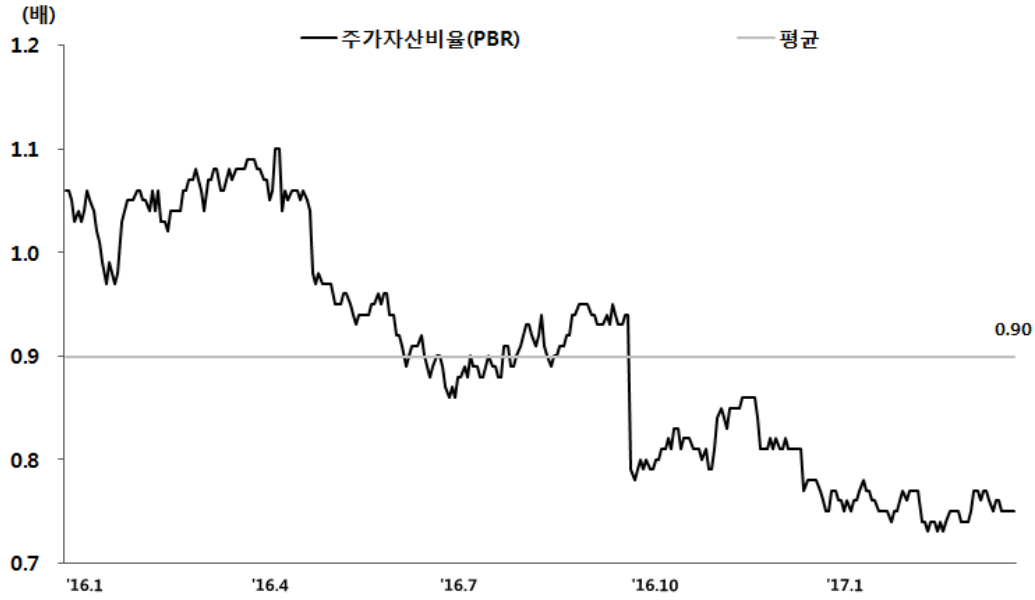
○ 보험지수의 하락으로 주가이익률(PER)과 주가자산비율(PBR) 모두 하락함.

〈그림 8〉 보험 주가이익비율(PER)



주: 직선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평균 주가이익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9〉 보험 주가자산비율(PBR)



주: 직선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평균 주가자산비율임.
자료: 한국거래소.